

## 법무법인(유) 지평, 통상자문센터 설립

법무법인(유) 지평은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상자문센터를 설립했습니다.

### 1. 배경

- 보호무역주의 대두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
- ESG, 에너지 전환, 디지털 전환의 통상장벽화
- EU, 미국 등 통상규제 강화: EU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, Fit for 55 등 기후규제 강화, 미국의 IRA 등 녹색보호주의 대두
- 미·중·러 갈등으로 인한 제재(sanctions) 확대 및 통상규제 강화
- 국제거래 및 해외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기업의 경우 통상 대응 및 사전적 컴플라이언스가 반드시 필요함
- 반면, 통상규제에 대한 모니터링, 통상 전략 수립 및 대응 역량은 매우 부족함

우리 기업들은 국제통상질서의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습니다. ESG가 국제통상의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습니다. 보호무역주의의 확산, 미중 패권경쟁의 심화,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, 녹색경제로의 전환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의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.

과거의 통상질서는 관세를 내리거나 폐지하고 국가간 장벽을 낮춰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는데 초점이 있었습니다. 환경, 사회, 지배구조와 같은 ESG는 통상질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

EU, 미국 등은 강화된 ESG 기준을 법규화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는 국제거래 및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습니다.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, 에코디자인규정, 배터리규정 등을 비롯한 환경규제를 통상문제화하고 있고,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등 인권과 사회 이슈도 통상이슈로 삼고 있습니다. 미국도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을 통해 기후변화

대응, 녹색에너지 전환 등 환경 목적의 규범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아울러 강제노동 규제를 무역규범에 도입하고 있습니다. 다자, 양자협정인 FTA도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, 노동을 비롯한 ESG 의제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.

기업은 이제 다양한 통상규제에 촉각을 기울여야 합니다. 통상조약 및 각국의 ESG 규제가 국제거래 또는 무역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른바 '통상 컴플라이언스'를 구축하여야 합니다.

## 2. 업무

- 맞춤형 통상 정보제공

해당 기업의 산업분야 및 거래 국가와 관련된 통상규제 정보를 저렴한 비용에 제공. 특히 ESG 통상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유럽 및 미국의 통상규제 정보를 적시에 제공

- 통상이슈 자문 및 솔루션 컨설팅

구체적 통상이슈가 생긴 경우 자문 및 솔루션 제공. EU 공급망실사법, 탄소국경조정제도, 미국 IRA, 강제노동 규제 등 대상 여부 및 규제 정보 검토 및 대응방안 컨설팅

- 통상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

통상 리스크 예방, 식별, 대응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에 통합하는 컨설팅 제공

## 3. 구성 및 강점

지평의 통상자문센터는 통상 및 ESG 규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지평 ESG센터 센터장이며 대한변협 ESG 경영 특별위원장이자 임성택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코트라 출신으로 통상분야에 오랜 경험이 있는 김두영 고문, 대기업에서 통상팀 및 통상 컴플라이언스를 직접 구축한 경험이 있는 백선우 외

국변호사, ESG 분야, 특히 지속가능성 실사법제의 전문가인 민창욱 변호사, 환경통상의 전문가인 송경훈 변호사 등을 필두로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특히 통상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산업정책, 비관세장벽 등 연구를 담당한 정민 수석연구위원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무역통상실, 코트라 경제통상협력본부 등에서 근무한 이주미 연구위원 등 전문가를 영입하였습니다.

아울러 지평은 국내 최대의 해외지사 네트워크와 해외 업무역량을 바탕으로 하고, 미국 및 유럽 등 통상규제 정보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는 피스컬노트(FiscalNote)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통상규제 업무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.

### 참고 자료

- 중소기업기업을 위한 ESG 통상 정책 · 규제 대응 핸드북(KOTRA, 2022. 12. 29.)
- 국제통상의 새로운 기준, ESG(통상, 2023. 3월호, Vol. 130)

### 법무법인(유) 지평 통상자문센터

임성택 대표변호사	T. 02-6200-1746 E. stlim@jipyong.com
김두영 고문	T. 02-6200-1761 E. dykim@jipyong.com
백선우 외국변호사	T. 02-6200-1631 E. sonupaik@jipyong.com
이준희 ESG센터 전략그룹장	T. 02-6200-1966 E. jhlee3@jipyong.com
민창욱 변호사	T. 02-6200-1841 E. cwmin@jipyong.com
송경훈 변호사	T. 02-6200-1811 E. khsong@jipyong.com
정민 수석연구위원	T. 02-6200-1712 E. mchung@jipyong.com
이주미 연구위원	T. 02-6200-1713 E. leejm@jipyong.com